

창조의 언약

신학박사 조 덕운

창세기 [1:26-28] [흠정역]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27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2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1. 창조를 통하여 주신 언약

창세기 1 장은 조물주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기록입니다. 첫 5 일동안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어둠의 환경에 빛과 질서를 부여하시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으며, 각종 식물들과 동물들을 창조하여 그들이 땅과 바다에 거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6 일에는,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지배-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을 모든 피조물 위에 매우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창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생겼던 언약의 관계는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창조되었는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와 심령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피조물과 창조주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제일 으뜸이요 가장 특별한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세번이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시고자 한 계획은 삼위 하나님 세분 간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 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엘로힘 [ELOHIM]’으로 32 번이나 적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복수 명사인데 비하여 비하여 엘로힘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로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신격, 즉 삼위일체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분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라고 협의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은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세분의 하나님 간에 미리 협의된 하나님의 계획 [Divine Plan] 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특별한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선언은 소위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메바에서 원숭이로, 그리고 사람으로 진화 하였다는 미친 논리를 여지 없이 파괴하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것으로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매우 특별한 창조물인 것입니다.

[시편 100:3] 주 그분께서[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인간은 영적인 대상을 이해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와 말씀을 수용하는 가슴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심장을 조용히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렇게 매우 특별한 존재로, 천사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서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움으로 경배하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왕은 다음 시편에서 그렇게 놀라움으로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시편 139:14-15]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므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제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매일 대화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항들과 금지하는 사항들을 잘 알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16-17] 주[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사람간의 대화는 1 장에서 아담과의 대화로 시작하여 창세기 전반에 걸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행해진 대화들에 관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 특히 사람과 대화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사람은 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사고 능력과 결정력을 부여받아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될 가능성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를 갖고 삽니까? 그분과 매일 대화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 다산과 번성의 소명

[창세기 1:2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는 대략 79 억명으로서 매년 약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약 2 억명의 인구이었다고 추정하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소명이 성공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강력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소수의 집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무시하고 세계 인구가 과잉상태이므로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는 명제를 수립하고, 인구 멸살 정책을 공공연히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탄적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행하는 방법 중 대표적 것은 백신 (예방주사) 안에 사람을 일정 기간 내에 사망토록 하거나 불임 상태가 되도록 하는 화학적 또는 유전적 인자를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탄이 활개를 치는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현재의 세계 빈곤 문제는 잘못된 분배 제도와 왜곡된 경제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세계의 식량 생산 능력은 미국과 캐나다만 하더라도 세계 인구를 충분히 먹이고 남는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여 아직도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소명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보면 드넓은 땅에 사람 살 곳이 아직 많습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 땅보다 훨씬 넓은 러시아의 광대한 땅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소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건강 상의 이유로 생산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한 몸과 경제적 여유를 가진 크리스찬 가정은 되도록 많은 아이들을 생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세계 여러 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선한 관리자의 소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존중한다면 소위 ‘정복하라’는 말씀을 “함부로 해하고 억압하며 이기적으로 착취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이 하실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관리자’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자연과 피조물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왔습니다. 바다와 산과 호수와 강들이 지극히 오염되어 어디를 가든지 쓰레기 덩어리들이 있고, 바다 속에 살아 숨쉬는 많은 물고기들이 플라스틱 폐기물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며, 인간의 건강한 먹이가 되어야 할 물고기와 가축들과 농산물이 암을 유발하는 오염 물질들을 포함하여 이를 먹고 사는 인간 사회는 암과 기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로 병원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선한 관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습니까?

2. 우리의 소명에 대한 회개의 필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즉 피조물을 계속 사랑하시는 창조주의 역할을 수행해 오시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공부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지고 아직도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소명에 대하여 솔직한 심령으로 검토하고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피조물의 겸허한 자세를 저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이 된 것처럼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 하는 마음을 저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방자하고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마치 정당한 과학적 이론인 것처럼 여기고, 학교에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성경 대신에 전혀 입증되지 않은 옳지 않은 ‘이론’을 마치 진리인양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자연과 지질학적 구조들이 창조와 노아의 홍수에 관하여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사탄적 허위 과학의 노름에 빠진 소위 지식층들의 자위적 위선과 허위를 규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의 주장과 논리에 올바른 신앙과 확실한 논조로 맞서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지는 존재임을 잊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죽음과 죄악의 길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솔직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하여 잘 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지도와 안내 받을 것을 구한다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지구의 선한 관리자의 책임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이웃을 돌아보고, 선한 관리자로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산업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자비와 사랑의 심령으로 이들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은 말세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을 것 [계 8:9]’을 예언하고 있으니, 아마도 지진과 해일과 더불어서 오염으로 인한 재앙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의 재림이 될 때까지 우리 인간은 선한 관리자의 책임을 심각히 여기고 환경을 지키며 돌보는 일은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